

#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 Working Wife's Employment-related Expenditures and perception of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叔才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金惠娟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

Prof. : Sook-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Hye-Yeon, Kim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rking wife's employment-related expenditures and perception of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ables on them. The finding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 had the largest effect on employment-related expenditures of working wives. Working wives perceived their economic contributions to the family positively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wives was important. And domestic and childcare service expenditures had effected on their perceptions.

#### I.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 여성, 특히 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3년 33.6%, 1986년 38.7%, 1989년 41.9%,

1992년 41.3%와 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한국여성개발원, 1994), 주부의 취업은 주부의 역할장소를 가정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가정생활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Hafstrom과 Schram,

1983). 이러한 주부의 취업이 주부자신,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한 흐름은 가정내 부부역할과 자녀양육의 변화 및 취업주부의 적응을 사회심리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흐름은 주부의 취업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가족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주부의 취업여부와 그에 따른 지출변화 및 가정의 경제적 이익을 고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가정경제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소득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존유지는 주부의 주요 취업동기로 작용하고 있다(Eggebeen과 Hawkins, 1990; Pritchard, 1990; Strober, 1977).

이에 따르면 주부가 취업을 한 맞벌이 가정(two-earner family)의 소득이 단일소득원 가정(one-earner family)보다 더 높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가정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주부의 취업소득 뿐 아니라 주부의 취업이 수반하는 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Vickery, 1979; Hanson, 1991). 이것은 취업주부가 이중역할로 인해 시간제약을 갖게 되므로 시간절약적 시장재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정생활의 표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Ehrenberg와 Smith, 1994) 이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주부는 취업과 관련하여 의복비, 교통비 등 주부 개인의 지출도 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 가정의 시장재 및 서비스지출과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주부의 취업에 의한 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anson, 1991). 그러나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취업소득이 갖는 의미는 객관적이기 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수 있다. 즉 주부에게 있어서 취업은 은폐된 노동가치로 인해 직접 소

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전업주부와 달리 자신의 소득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제공해주는 심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문숙재, 김혜연, 1994). 더우기 취업주부는 취업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를 취업비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취업에 의해 생활이 향상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취업관련지출이 증가할수록 가정경제에 기여한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가정내 권력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ré,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9). 따라서 취업관련지출과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취업 관련 지출과 그에 따른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을 분석하고 관련변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부의 취업이 갖는 독특한 경제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로서 관련연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취업주부 가정의 지출감소와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의 노력 및 공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가정경제에 대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무엇보다도 주부의 취업에 의해 가정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주부의 취업소득은 직업의 종류와 임금 노동시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Pritchard, 1990). 이러한 취업주부의 소득은 가정의 빈곤을 해결해주거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가장의 실직, 질병, 사망이나 이혼 등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공헌하게 된다(Hefferan,

1982).

Eggebeen과 Hawkins(1990)는 1970-1989년 사이의 미국의 실질 가정소득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주부의 취업에 의한 소득이 기여하였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lau와 Feber에 의하면 1981년 미국의 시간제 취업주부는 가정소득에 대해 평균 25% 정도 기여를 하였고, 전일제 취업주부는 38%의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는 저소득층의 경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 1994). Lazear와 Michael(1980)은 취업주부 가정이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실질소득이 25% 정도 더 높았다고 하였으며, Pritchard(1990) 역시 취업주부 가정의 소득이 더 높았다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Hanson(1991)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취업소득에 의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를 화폐소득, 저축, 주택소유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취업주부 가정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기춘과 민현선(1992)의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전일 취업주부의 경우 38%, 부분 취업 및 부업의 경우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취업주부에게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와 조재순(1991)에 따르면 45-54%의 취업주부가 자신의 취업소득이 주택마련, 저축, 자녀의 양육 및 교육비, 기타 생활비 각 항목에 대해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36-39%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81-91%의 취업주부가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다소' 내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자신의 취업소득이 '전혀' 혹은 '별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기타 생활비 항목에 3.4%,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4.0%, 저축에 5.3%,

주택마련에 11.6%로 나타나 지출액수가 큰 항목에 대해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는 총가계 소득 중 취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취업주부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 더우기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로 있을 때와는 달리 부가적인 취업관련 지출이 있게 되면(Ehrenberg와 Smith, 1994) 그러한 지출을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인식할 수 있다.

## 2.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

일반적으로 주부가 취업을 할 경우 취업소득은 구매력의 향상을 초래하므로 전반적으로 가정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취업관련 지출에 관한 연구들의 전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내구재나 혹은 시장재 및 서비스를 더 구매할 것이라는 것이었다(제미경과 박명희, 1993; Strober와 Weinberg, 1977). 그러나 주부의 취업과 내구재설비의 구매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Nickols와 Fox, 1983)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은 시장재 및 서비스의 이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식생활영역에서 주부의 취업에 따른 지출 차이는 외식 및 편의식품에 대한 논의가 빈번한데, Dardis, Derrick과 Leheld(1981)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 가정의 외식비 지출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Redman(1980)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외식과 조리식품에 대한 지출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주부의 취업과 외식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가공식품의 지출비와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지출은 가정소득, 대도시 지역, 자녀의 유무 및 연령, 주부의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ouglas(1976)는 미국과 프랑스의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외식, 인스턴트 후식, 캔 음식, 조리식품 등 10가지 편의품에 대한 지출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에서의 시장재 및 서비스의 지출에 미치는 주부의 취업여부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ellante와 Foster(1984)는 주부의 취업상태와 외식, 자녀양육, 가정서비스, 의복관리서비스, 개인적 관리에 대한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는 자녀양육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과 관계가 있었던 변수는 어린 자녀의 유무, 주부의 취업여부, 인종, 주부의 연령, 주택소유여부, 가정소득 등이었다. Yang과 Magrabi(1989) 역시 이와 유사하게 외식, 의복관리서비스, 자녀양육서비스 및 가정서비스와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취업시간과 외식비의 지출은 관계가 없었으며, 의복관리서비스 및 가정서비스도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주부의 취업상태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밖에 어린 자녀의 유무, 가족수, 주부의 교육수준 및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부의 취업여부가 의복서비스나 외식비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반면 자녀양육서비스의 지출 차이는 보다 분명한 경향이 있다.

자녀관리는 취업주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친척에게 맡기는 것에서부터 보모, 유모 등을 이용하거나 탁아기관, 사설기관 등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혈연관계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을 경우 사례비는 낮아질 수 있지만(Hofferth, 1987; Hanson, 1991에서 재인용), Schwenk(1986)는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의 가장 큰 지출 차이는 자녀양육서비스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Hanson(1991) 역시 취업주부 가정의 가장 많은 금전비용이 자녀양육서비스의 이용에서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숙재와 성지미(1991)는 취업주부 가정의

시장재 및 시장용역에 대한 지출을 조사하였는데, 각각 276,400원과 215,800원으로 나타나 취업소득의 33.50%와 24.25%에 해당하였다.

한편 소득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주부의 취업은 가정의 의복비지출을 증가시키며(Dardis, Derrick과 Lehfeld, 1981), 취업지위에 따라 분석해보면 전문직 취업주부 가정은 전업주부 가정보다 주부 자신 뿐 아니라 남편, 자녀의 의복비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DeWeese와 Marjorie, 1991). 이상에서 볼 때 주부가 취업을 할 경우 주부 자신의 의복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의복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Vickery(1979)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취업주부 가정의 교통비, 의복비 및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더 많았다. Strober와 Weinberg(1977), Foster(1988) 역시 주부가 취업을 함으로써 의복비, 교통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주부의 취업은 가정의 시장재와 서비스의 지출 및 주부개인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의 유무나 영향정도는 연구결과에 따라 일관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가정의 지출 및 주부 개인의 지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을 일반적인 시장재와 서비스에 대한 가정 지출과 주부 개인의 지출로 정의하고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념화된 취업관련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 및 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변수, 주부의 취업상태와 관련된 변수,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은 어느 정도이며, 취업주부의 가정상황 및 취업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2)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은 어느 정도이며, 취업주부의 가정상황과 취업특성 및 취업관련 지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 (1) 종속변수

#### 1) 취업관련 지출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은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장재와 서비스에 대한 가정 지출과 주부개인의 지출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Bellante와 그의 동료들, 1984; Hanson, 1991; Vickery, 1979)를 참고로 가정 지출에는 식생활영역에서 외식, 배달음식(중국음식, 피자 등), 시장음식(포장김치, 반찬류, 장류 등), 편의식품(라면, 구이김, 냉동식품 등)을, 의생활영역에서 세탁 및 수선비를 포함시켰다. 일반가사 및 자녀관리영역에서는 유아원, 유치원, 가정탁아방이용 및 가정부, 파출부고용비, 자녀의 예, 체능교습비 및 개인지도비, 그리고 친척, 친구 등의 도움에 대한 사례금,용돈 등의 지출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반 가사와 자녀들 보기가 가정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쉬우며, 주부의 취업에 의해 자녀관리비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자녀관리비의 상승으로 인해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기도 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윤선희, 1994). 또한 사례금은 시장서비스의 성격은 아니지만, 가정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Heffferth, 1987; Schwenk, 1986) 포함시켰다. 한편 주부개인의 취업관련 지출로는 의복비, 교통비와 사교비 및 용돈을 포함시켰다.

#### 2)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이란 취업주부가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생활비, 저축, 자녀양육 및 교육비, 주택 구입 등의 장

기적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likert형식으로 구성하였다.

### (2)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으로 선행연구(Nickols와 Fox, 1983; Strober와 Weinberg, 1977; Vickery, 1979)를 근거로 여러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정상황변수와 취업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가정상황변수에는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 주택형태, 가족형태, 가정소득 및 남편의 취업지위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임금노동시간만을 주요 변수로 선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관련지출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주부의 취업소득, 취업지위, 취업동기, 취업에 대한 태도 및 취업시간 등의 다양한 취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이 때 주부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였으며, 남편과 주부의 취업지위는 홍두승(1983)의 분류를 근거로 하였다. 취업에 대한 태도는 주부가 자신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정도를 질문한 3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Cronbach's alpha값은 .89였다. 또한 소득은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주부의 취업시간은 (평일\*5+토요일+일요일)/7로 파악하였다. 한편 변수의 성격에 의해 몇 몇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주택형태는 집합주택=1, 단독주택=0, 가족형태는 핵가족=1, 확대가족=0, 남편 및 주부의 취업지위는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자영업=0, 기타=1, 전문직이상=1, 기타=0, 주부의 취업동기는 시간의 활용을 기준으로 경제적 동기=1, 기타=0, 능력발휘 및 자아실현 동기=1, 기타=0, 주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1, 고졸이하=0으로 각각 가변수화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취업주부로서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한정하였고, 자녀의 연령이 자녀

관리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므로 첫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취업주부 자신의 소득과 취업시간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가정내 부업가정, 남편과 같이 자영업을 하거나 가정과 직장이 맞붙어 있는 자영업가정은 제외하였다. 서울을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의 4지역으로 나누어 층화표집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표집하였으며, 훈련받은 면접원이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취업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19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문항의 수정 후 본조사는 1995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행하였다. 최종분석자료는 취업주부 313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평균, % 등을 통해 일반적인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였고,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관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취업관련지출은 가정에 따라 지출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 0값에 편중되는 표본절단 현상(censored)이 나타났으므로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Tobit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Greene, 1993). 또한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에 미치는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지출의 영향력은 OLS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1.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 수준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 실태를 가장 적은 지출에서 가장 많은 지출로 늘어놓은 4분위수(quantiles)에 의한 지출분포<sup>1)</sup>를 통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식생활영역에서 가장 지출비중이 높은 것은 외식이어서 취업주부의 25%는 평균 5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또 다른 25%는 평균 1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전체 평균 외식비는 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외식비용인 10만원(김상영, 199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생활영역에

서 세탁 및 수선에 대한 평균 지출은 2만 2천원이었는데, 문숙재, 성지미(1990)의 약 1만 6천원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관리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50%는 자녀관리를 위한 지출이 없었으며, 다른 지출에 비해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 자녀의 존재나 학령기 자녀의 교육유형 및 자녀를 돌봐줄 친척 등의 존재유무에 따라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관리서비스비가 다양하게 지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아원, 탁아방에 대한 평균 지출이 약 8만원이었으며, 기타사례금의 평균 지출이 약 9만원이었던 것은 자녀관리에 대한 친척의 도움이 시장서비스는 아니지만 무보수적(unpaid) 원조로부터 보수적 원조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개인지출비 역시 편차가 커서 의복비의 경우 취업주부의 25%는 평균 1만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25%는 평균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관리비 역시 비슷한 지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지출비는 7만원 정도였다. 취업주부의 교통비는 평균 4만원으로 1994년 개인교통비인 평균 7만 8천원(김상영, 199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관련지출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관련지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obit분석한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이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주부의 연령, 막내자녀의 연령, 자녀수와 그리고 가정소득, 취업소득, 가정소득에 대한 취업소득의 비율 간에 각각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관련지출에 영향이 큰 막내자녀의 연령과 가정소득(김혜연, 1995)만을 포함시켰다.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서 식생활영역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출은 가정소득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Tobit분석은 표본절단된(censored)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출분포를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13)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가족유형	핵가족	274(87.5)	취업동기	경제성	129(61.2)	
	확대가족	39(12.5)		능력발휘	91(29.1)	
주택형태	단독주택	90(28.8)			시간활용	30(10.7)
	집합주택	223(71.2)	남 편 직업	단순노무직	5( 1.6)	
주부직업	단순노무직	9( 2.9)		직업 고용직	16( 5.1)	
	고용직	48(15.3)		자영업자	60(19.2)	
	자영업자	68(21.7)		사무직	98(31.3)	
	사무직	89(28.4)		전문기술직	26( 8.3)	
	전문기술직	76(24.3)		전문직, 관리직	96(30.7)	
	전문직, 관리직	23( 7.3)		기업주, 고위관리	12( 3.8)	
변 수				평균(M)		표준편차 (SD)
주부의 연령(세)				34.6 13.6		5.9
주부의 교육수준(년)			6.3		2.3	
막내자녀의 연령(세)			1.6		5.0	
자녀수(명)			263.2		0.6	
가정소득(만원)			114.1		102.9	
주부의 취업소득(만원)			43.0		62.8	
가정소득에 대한 주부의 취업소득 비율(%)			7.2		11.2	
주부의 취업시간(시간)			21.1		1.6	
취업에 대한 태도					4.2	

있는데, 가정소득이 증가할수록 시장음식을 제외한 모든 시장재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재 및 서비스의 지출에 있어서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Bellante와 Foster(1984) 및 Lazear와 Michael(1980)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취업주부의 교육수준은 외식, 시장음식 등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합리화하고, 간소화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이기영, 1987).

주부자신의 취업지위는 배달음식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시장음식에 대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에 대해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는 주택형태로 집합주택에 살 경우

그 지출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집합주택의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취업주부 가정은 음식의 배달보다는 외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주택형태는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Walker와 Woods, 1976). 또한 막내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편의식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식생활영역에서의 시장재 이용은 주부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절약의 의미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기호, 생활의 편리함 추구 및 주변 상가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외생활영역에서 세탁, 수선에 대한 지출은 Nickols와 Fox(1983)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정적

〈표 2〉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실태

(단위:만원)

지출영역	분포 및 경향	25th	50	75th	M	SD
식생활 외식		5.0	7.0	10.0	8.7	7.7
배달음식		0.0	2.0	3.0	2.2	2.9
시장음식		0.0	1.0	3.0	2.4	4.1
편의식품		1.0	2.0	3.0	2.5	2.7
의생활 세탁. 수선		1.0	2.0	3.0	2.2	2.1
자녀관리 유아원, 탁아방		0.0	0.0	12.0	8.1	13.1
가정부, 파출부		0.0	0.0	0.0	4.0	13.1
예, 체능교습		0.0	0.0	0.9	5.8	9.9
학과교습비		0.0	0.0	10.0	7.1	12.5
기타사례금		0.0	0.0	10.0	8.9	15.0
주부개인 의복, 화장품		0.3	0.5	10.0	7.4	6.1
지출 교통비		1.0	3.0	7.0	4.0	3.8
개인관리비		3.0	5.0	10.0	7.2	7.6

인 관계에 있었다. 반면, 남편의 직업지위 및 주부 자신의 능력발휘의 취업동기와 취업에 대한 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2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Yang과 Magrabi(1989)에 의하면 의복관리서비스는 특성상 편리한 시간까지 연기가 가능하므로 주부가 시간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과 무관하게 이 영역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수 있다. 둘째, Ferree(1980, 1987)는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부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유하기 쉬우며,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고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 일에서도 성공을 하려는 'superwoman'이 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취업주부 스스로 가사노동을 직접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자녀관리를 위한 지출에서도 가정소득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소득이 많을수록 자녀관리서비스 뿐 아니라 친척 등의 도움에 대한 사례금도 증가하였다. 실제로 가정소득은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관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과 선택의 범위 및 폭을 확장시키는 촉진자원으로 존재한다(Hafstrom과

Schram, 1983).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아원, 탁아방 및 기타사례금에 대한 지출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막내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예, 체능교습비 및 학과교습비는 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관리유형 및 자녀관리를 위한 지출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서 자녀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가족형태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확대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주부가 친척 등의 도움에 대해 지출하는 기타 사례금은 가정소득 뿐 아니라 주부의 경제적 취업동기, 취업에 대한 태도, 남편의 직업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취업과 관련된 주부의 태도 및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주부개인의 지출은 주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주부의 취업시간과 취업주부의 교통비는 부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는 의복비, 개인관리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표 3〉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관련 가정지출의 Tobit분석결과

변수	지출비	외식	배달음식	시장음식	편의식품	총 식생활비	세탁, 수선
<u>가정상황변수</u>							
막내자녀연령		-0.035 (.095)	.032 (.048)	-.012 (.077)	.102*** (.036)	.091 (.137)	-.043 (.030)
<u>주부교육수준</u>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3.241*** (1.197)	-.365 (.604)	1.677* (.972)	-.275 (.455)	3.680** (1.729)	.280 (.370)
<u>가족형태</u>							
핵가족 (확대가족)		1.009 (1.337)	-.200 (.668)	1.671 (1.144)	-.549 (.509)	.971 (1.937)	.016 (.415)
<u>주택형태</u>							
집합주택 (단독주택)		.190 (.940)	-1.234** (.484)	.367 (.770)	-.366 (.360)	-.085 (1.359)	-.195 (.294)
<u>남편직업지위</u>							
자영업		-1.258 (1.254)	-.197 (.629)	1.107 (1.022)	-.612 (.475)	-.556 (1.804)	-.671* (.389)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2.271* (1.250)	-.431 (.627)	1.045 (1.007)	.188 (.474)	-.712 (1.797)	-.854** (.387)
가정소득		.033*** (.004)	.011*** (.002)	.003 (.003)	.004*** (.002)	.045*** (.006)	.004*** (.001)
<u>취업특성변수</u>							
<u>취업지위</u>							
자영업		1.116 (1.223)	1.432*** (.617)	-2.655*** (1.001)	.317 (.467)	1.290 (1.769)	-.277 (.380)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1.892 (1.405)	1.661*** (.708)	-2.905*** (1.158)	.683 (.536)	-1.567 (2.038)	-.381 (.436)
<u>취업동기</u>							
경제성		-1.236 (1.503)	.859 (.735)	.084 (1.247)	-.094 (.569)	.133 (2.160)	-.654 (.465)
능력발휘 (시간활용)		-3.357** (1.639)	.424 (.277)	-1.781 (1.351)	-.249 (.623)	-3.873* (2.364)	-1.397*** (.508)
취업시간		-.004 (.004)	-.002 (.002)	.001 (.004)	-.002 (.002)	-.003 (.006)	.001 (.001)
취업에 대한 태도		-.282 (.518)	.199 (.260)	.269 (.422)	.194 (.197)	.401 (.747)	-.327** (.162)
상수		5.411	-3.319	-.182	1.212	4.068	4.565
Log Likelihood		-1002.764	-641.790	-695.670	-722.447	-1170.023	-643.807

\* P < .10, \*\* P < .05, \*\*\* P < .01

〈표 3〉의 계속

변수	지출비 유아원 탁아방	가정부 파출부	예, 체능 교습	학과 교습	기타 사례금	총 자녀관리비
<u>가정상황변수</u>						
막내자녀연령	-4.82*** (.612)	-.917 (1.357)	.987*** (.286)	2.689*** (.298)	-1.160*** (.365)	-.300 (.339)
주부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5.389 (4.534)	-46.7*** (18.368)	4.412 (3.584)	-4.994 (3.791)	-5.237 (4.208)	-8.936** (4.248)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2.404 (5.092)	-12.764 (15.708)	-2.998 (3.832)	-3.994 (4.050)	-5.894 (4.644)	-4.005 (4.758)
주택형태						
집합주택 (단독주택)	7.715** (3.658)	3.295 (12.619)	-.735 (2.760)	.933 (2.815)	.010 (3.503)	3.745 (3.350)
남편직업지위						
자영업	.941 (4.989)	-2.907 (20.078)	-3.998 (3.635)	4.038 (3.742)	-6.289 (4.800)	-.629 (4.431)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340 (5.048)	-21.703 (18.256)	-4.926 (3.548)	-3.471 (3.592)	-8.501* (4.851)	-7.174* (4.423)
가정소득	.040** (.017)	.162*** (.049)	.067*** (.012)	.049*** (.012)	.038*** (.015)	.120*** (.015)
<u>취업특성변수</u>						
취업지위						
자영업	10.154** (4.769)	33.781* (19.992)	7.489** (3.652)	4.038 (3.742)	-7.420* (4.526)	6.345 (4.385)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904 (5.437)	10.982 (17.236)	-3.020 (3.997)	-3.471 (3.592)	2.591 (5.193)	1.364 (5.030)
취업동기						
경제성	1.726 (5.873)	-10.479 (20.555)	3.320 (4.067)	-5.555 (4.308)	-10.878** (5.719)	-7.258 (5.331)
능력발휘 (시간활용)	6.162 (6.272)	-26.353 (21.384)	4.236 (4.564)	5.179 (4.950)	-8.907 (6.115)	-2.882 (5.820)
취업시간	-.033* (.019)	-.027 (.178)	-.017 (.012)	-.022* (.012)	.038** (.017)	.002 (.015)
취업에 대한 태도						
상수	.716 (2.051)	-2.157 (7.364)	-1.194 (1.511)	.704 (1.540)	4.458** (1.956)	2.329 (1.835)
Log Likelihood	-612.497	-244.102	-605.204	-621.154	-785.676	-1372.701

\* P &lt; .10, \*\* P &lt; .05, \*\*\* P &lt; .01

〈표 4〉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관련 개인지출에 대한 Tobit분석결과

변수	지출비	의복 화장품비	교통비	개인관리비	총 개인지출비
<u>가정상황변수</u>					
막내자녀연령		-.101 (.070)	.040 (.056)	.030 (.101)	.014 (.154)
주부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 (고졸이하)		1.397* (.890)	-1.056 (.693)	1.764* (1.270)	1.874* (1.941)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1.573* (.992)	-.248 (.781)	-.454 (1.435)	.834 (2.174)
주택형태					
집합주택 (단독주택)		.043 (.698)	.084 (.552)	.555 (1.008)	.778 (1.526)
남편직업지위					
자영업		.263 (.928)	-.502 (.734)	-1.751 (1.337)	-1.912 (2.027)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856 (.926)	-.541 (.732)	-1.214 (1.324)	-2.244 (2.017)
가정소득		.026*** (.003)	.006*** (.003)	.027*** (.005)	.058*** (.007)
<u>취업특성변수</u>					
취업지위					
자영업		-.100 (.909)	-.479 (.711)	-1.936* (1.302)	-2.400 (1.987)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2.261** (1.047)	.266 (.817)	-2.456* (1.503)	-3.974* (2.288)
취업동기					
경제성		1.789* (1.104)	.359 (.870)	-.781 (1.586)	1.280 (2.413)
능력발휘 (시간활용)		1.428 (1.211)	-.361 (.954)	-2.705 (1.735)	-1.522 (2.645)
취업시간		-.004 (.003)	-.008*** (.003)	-.005 (.005)	-.014* (.007)
취업에 대한 태도					
상수		.293 (.383)	.341 (.304)	.329 (.552)	.731 (.838)
		.436	5.745	7.027	12.248
Log Likelihood		-944.532	-781.745	-979.544	-1203.066

\* P < .10, \*\* P < .05, \*\*\* P < .01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취업주부는 의복비와 개인관리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일수록 의복비에 대한 지출이 많았다는 DeWeese와 Marjorie(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 3.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취업주부가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수준

25th	50	75th	M	SD
3.14	3.57	4.14	3.61	0.71

(최저-최고 범위:1.5)

중간점수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점수가 3.61이므로 본 연구의 취업주부들은 자신의 취업소득에 의한 가정경제에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25%는 평균 점수가 3.14점이므로 가정경제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기여한다고 인식하였던 반면 또 다른 25%는 평균 점수가 4.14점이어서 가정경제에 대해 '매우 높게'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취업소득의 경제적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던 이연숙과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관련 지출과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LS 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막내자녀의 연령이 아닌 주부의 연령을 포함시켰고, 가정소득 대

신 취업주부의 객관적 경제적 기여도인 가정소득에 대한 취업소득의 비율을 선택하였다.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는 가정소득에 대한 주부의 취업소득의 비율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취업동기였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경제적 기여 정도는 취업에 의한 소득을 근거로 하며, 생활비를 벌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주부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기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주부의 취업상태와 취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경제적 기여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에 의한 소득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취업관련지출 변수 중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일반가사 및 용역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우선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경제적 기여는 취업에 따른 가사 및 자녀관리를 위한 지출을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취업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초래되는 지출은 가사 및 자녀관리영역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영역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여부에 있어서 취업소득에 의한 경제적 기여 정도가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취업관련지출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을 밝히고 관련변수 및 영향력을 제시하며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취업관련지출에 의해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

〈표 6〉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력

설명변수	B(β)
<u>가정상황변수</u>	
주부의 연령	-.015(-.127)*
주부소득의 비율 <sup>1</sup>	2.166(.346)***
가족유형	-.047(-.022)
주택형태	-.107(-.069)
주부교육수준	
대졸이상 (고졸이하)	.129(.091)
남편의 취업지위	
자영업	.041(.027)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027(.019)
<u>취업특성변수</u>	
주부의 취업시간	.000(.066)
주부의 취업지위	
자영업	.054(.035)
전문직이상 (단순노무직)	-.029(-.019)
주부의 취업동기	
경제성	.370(.255)***
능력발휘 (시간유용성)	.188(.120)
취업에 대한 태도	.094(.123)*
<u>취업관련지출변수</u>	
외식비 <sup>2</sup>	.007(.092)
시장을음식비 <sup>3</sup>	-.001(-.008)
세탁,수선비	.003(.008)
일반가사및 용역비 <sup>4</sup>	-.004(-.145)**
자녀의 개인지도비 <sup>5</sup>	.003(.070)
주부개인지출비 <sup>6</sup>	-.001(-.023)
상수	2.380
R <sup>2</sup>	.201

\* P < .05, \*\* P < .01, \*\*\* P < .001

<sup>1</sup> 가정소득에 대한 주부소득의 비율

<sup>2</sup> (외식비+배달음식비)

<sup>3</sup> (시장을음식비+편의식품비)

<sup>4</sup> (유아원,탁아방+가정부,파출부+기타사례금)

<sup>5</sup> (예·체능교습비+학과교습비)

<sup>6</sup> (의복비,교통비,개인관리비)

다.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은 식생활, 의생활, 일반가사 및 자녀관리영역에서의 시장재 및 서비스에 대한 가정지출과 취업주부개인의 의복비, 교통비, 개인관리비에 의해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취업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은 취업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 즉 가정의 지출비 및 개인지출비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였고, 가정간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특히 주부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자녀관리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편차가 존재하였으며, 무보수적 원조로 인식되는 친척의 도움에 대한 사례금이 상당한 액수였던 것은 앞으로 취업관련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가정상황변수와 취업특성변수로 구분하여 취업관련지출과의 관계를 Tobit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식생활영역에서의 시장재 및 서비스의 지출은 가정소득 이외에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자녀의 연령, 주택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원의 기호, 편리함을 추구하는 태도나 시장여건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생활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가정소득 이외에 뚜렷한 관련변수를 찾을 수 없었던 반면 일반가사 및 자녀관리서비스는 자녀의 연령 및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또한 취업주부의 개인지출비 역시 가정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으며, 주부의 취업지위나 취업시간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정소득이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취업주부가 가정생활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의 선택 폭 및 주부자신의 관리를 위한 지출범위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은 가정소득에 대한 취업주부

의 소득비율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는 기본적으로 취업에 의한 소득 정도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기여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주부의 취업에 대한 태도나 혹은 취업의 경제적 동기에 따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이 달라졌으므로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주부의 취업배경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가정상황이나 취업특성 변수 이외에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에 영향을 주었던 취업관련지출은 오직 일반가사 및 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주부의 취업에 의한 소득과 달리 취업에 의해 초래되는 지출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해줄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관련지출을 취업주부들은 취업에 의한 비용, 즉 취업소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주부의 취업소득을 통해 가정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결정에서 고려하는 요인은 취업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 취업소득일 수 있으며, 또한 취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으로 인해 가정지출과 주부 개인의 지출에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관련지출을 개별화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취업관련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화작업이 필요하며, 나아가 면접을 이용한 심층분석 등을 통해 취업주부 자신이 인식하는 취업관련지출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주기단계, 혹은 가정유형에 따라 취업관련지출을 분석하고 관련 변수를 계속 탐색함으로써 취업관련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상영(1995). 도시근로자가구. 동아일보. 3월 24일, 13면.
- 2)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문숙재, 김혜연(1994).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주부직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15-29.
- 4) 문숙재, 성지미(1991).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사회화 정도 및 비용과 그 평가에 관한 연구. 논총 59, 291-325.
- 5) 윤선희(199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이기춘, 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0, 107-120.
- 8)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 9) 제미경, 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13.
- 10) 한국여성개발원(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한국여성개발원.
- 11)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위한 계층연구: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 69-83.
- 12) André, R. 한국여성개발원, 역(1987). 가정주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한국여성개발원.
- 13) Blau, F.D. & M.A.Ferber,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1994). 여성, 남성, 노동의 경제학. 서울:학지사.
- 14) Bellante, D. & A.C.Foster(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ces. JCR 11, 700-707.
- 15) Dardis, R.D.F. & A.Lehfeld(1989).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 analysis. HERJ 10, 212-222.
- 16) DeWeese, G. & Marjorie, J.T.N.(1991). Female-

- headed households: impact of family structure in household expenditures for clothing. *HERJ* 22, 39-57.
- 17) Douglas, S.P. (1976). Cross-National Comparisons and Consumer Stereotypes: A Case Study of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in the US. and France. *JCR* 3, 2-20.
- 18) Eggebeen, D.J. & A.J. Hawkins (1990). Economic need and wives's employment. *JFI* 11, 48-67.
- 19) Ehrenberg, R.G. & R.S. Smith (1985).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mpany.
- 20) Ferree, M.M. (1980). Satisfaction with housework: the social context, *wome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Sage Pub. 5, 89-112.
- 21) ——— (1987). The struggles of superwoman. *Hidden aspects of women's work*. NY: Praeger.
- 22) Foster, A.C. (198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CSHE* 12, 15-27.
- 23) Hafstrom, J.L. & V.R. Schram (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 *HERJ* 11, 245-254.
- 24) Hanson, S.L. (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MF* 53, 622-634.
- 25) Hefferan, C. (1982). Workload of married women. *FER* 3, 10-15.
- 26) Lazear, E.P. & R.T. Michael (1980). Real income equivalence among one-earner and two-earner families. *AER* 70, 203-208.
- 27) Nickols, S.Y. & K.D. Fox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JCR* 10, 197-208.
- 28) Pritchard, M. (1990). The value of the second income to two-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Lifestyles: FEI* 12, 127-141.
- 29) Schwenk, F.N. (1986). Child care arrangements and Expenditures. *FER* 4, 1-11.
- 30) Strober, M.H. (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 *AER* 2, 410-417.
- 31) Strober, M.H. & C.B. Weinberg (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CR* 4, 141-147.
- 32) Vickery, C. (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33) Yang, S.J. & F.M. Magrabi (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ERJ* 18, 133-147.
- 34) Walker, K. & M. Woods (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